

# 무주 '신선명품마을' 주민갈등 심화

〈설천면 두길리 구산·방재·별한마을 마을영농조합법인〉

### 주민 20여 명 '명품마을 지정 취소해 달라' 탄원 기자회견 열어... 관계기관 조사 촉구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구산·방재·별한마을)의 마을영농조합법인 신선명품마을의 운영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20여 명의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6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농법인 신선명품마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품마을 지정취소와 함께 관계기관의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명품마을 사업이 본래의 지정취지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운영, 관리 및 예산집행 부분에 상당한 의혹이 있으며 주민들 간 반목과 불신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등 마을전체가 깊은 실의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품마을 사업 시행 중 지원 받은 차량과 운반기, 두부기계, 착즙기 등 마을과 법인 소유의 비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개인 소유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산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덕유산 신선명품마을사업은 풍요로운 마을,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조성 등을 목적으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2011년 최초 7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조성을 시작했으며 그 후로도 매년 3000만 원~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 중기 금융지원협의회

7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11개 은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은 전북본부 제공)

주민들은 "주민전체 반영과 발전을 위한 명품마을 운영이 규약과 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소수인의 의견과 편파적인 의사결정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5년 임의로 정관을 바꾸면서 마을주민이 아닌 타 조합원으로 구성·운영돼 원래

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덕유산사무소 관계자는 "명품마을 최초 조성 시 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주민 간 갈등은 안타깝다"며 "지정 취소는 주민총회를 거쳐야만 철저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품마을 정미재 이장은 "명품마을 지정이 취소돼야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것 같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살려주세요', '절어주세요' 라고 하소연 했지만 지금까지 묵살됐다"며 "반대 서명한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신속공사 현장〉

## 부안 '제일 오투그란데' 주변도로 균열 심각 | 부안을 하이안아파트 뒷길, "15일까지 조치 요구"

전북의 모 건설업체가 부안 불덕 '제일 오투그란데'의 아파트 신속 공사 중 주변 도로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문제는 부안을 하이안아파트 후문 도로가 대형아파트 신속 공사로 인해 도로가 균열되고 내려앉아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곳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아침과 저녁에는 학생들 등하교 길로 상시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 김모씨(56)는 "도내 선두 건설업체가 마구잡이식 아파트 공사를 추진해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도 관찮은지 묻고 싶으며 관계당국은 철저한 감독"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도로 균열 및 침하발생 민원이 접수돼 시공사측에 선 안전 조치 공문을 보냈으며 원인 분석과 조치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군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파트 시공사측은 "현재 이 곳이 상당한 연약 지반으로 공사 전에도 조금씩 도로 침하가 발생한 곳이라며 아스콘 덧씌우기와 터 파기 공사 완공으로 대형 덤프트럭 운행을 중지시킨 상태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초구조물 공사를 진행해 더 이상 도로 침하 및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측은 "앞으로 아파트 신속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군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불덕 '제일 오투그란데'의 아파트 신속 공사 중 주변 도로의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전주 시내버스 노조, 부분과업 돌입

7·8일 오후 2시부터 호남·전일·제일·성진 참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부분과업에 돌입했다.

전북민주노총은 7일 시내버스 노조 300여명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일 동안 운영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다.

과업에는 호남고속, 전일여객, 제일여객, 성진여객이 참여해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 회사의

노조가 참여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측과의 진행 중인 입단협 협상에서 1일 2교대제 실시와 장년 연장 등에서 입장 충돌이 있어 과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과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과업 연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아내 상습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7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6)씨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지난해 9월부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으로 볼 때 범행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이혼소송으로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한 점과 사실상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전북경찰청 '사랑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전북청 구내식당에서 조희현 청장과 경찰청장 전위원회 정현국 위원장을 비롯해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북경찰의 훈훈한 온정을 모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 걱정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장 김치는 다문화 가정, 탈북민, 범죄피해가정, 순직

유가족, 국가유공자, 불우경우회원 및 멘티가정 등 30여 곳에 전달됐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저희 직원들이 정성껏 버무린 김장 김치가 옮겨올 어려운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이웃의 작은 어려움까지 헤아리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고부가가치식품개발 지원 효과 만점

전주시 지원 업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평가회 대상·최우수상

전주시가 좋은 원료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R&D(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식품기업에게 고부가가치식품개발 상품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올해 고부가가치식품개발을 지원한 전주시 2개 업체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17년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성과품평회'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올해 식품기업인 '누이단판'의 의뢰를 받아 '천연발효종밥'을 이용한 지역자원의 가공적성 연구 및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복숭아쥬'를 개발, 이번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한, 식품기업 '디자인농부'의 '팔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다이어트) 음료제품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기능성 팥차'와 '팥죽'을 개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